

“누구를 돕는 일 나이 중요치 않아요”

日 호텔에 비치된 경전보고 '역경사업지원' 발원
“남에게 베풀면 그만큼 사업 번창해 이윤 생겨요”

주 / 영 / 운
행원문화재단 이사장

‘진정한 법문은 그 법문이 끝난 뒤의 행(行)에 있다.’ (법구경)

1백가지 말보다 실천이 앞서야 한다는 행을 강조한 경구다. 살아가면서 누구나 수많은 원(願)을 세우지만 그것을 실천하며 사는 일은 결코 녹록치 않다는 의미다. 이런 점에서 올해 팔순을 맞은 주영운 행원문화재단 이사장은 사재를 털어가며 자신이 세운 원을 묵묵히 실천하며 살아온 이 시대의 진정한 유망가사다.

‘행원(行願)’. 주 이사장이 평생토록 좌우명으로 살아온 이 법명은 지난 72년 관음 스님(현 직지사 조실)에게서 받은 것이다.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다닌 절이 구로동 심원사였는데 증명법사로 참석한 관음 스님이 원을 세우고 실천하는 삶을 살라는 가르침과 함께 지어주었다.

“살아오면서 알게 모르게 도움받은 분들이 많았습니다. 형편이 나아지면 그분들을 일일이 찾아뵙고 은혜를 갚고 싶었는데 그러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불교를 위해 힘쓰는 이들과 어려운 이들에게 내가 번 돈의 일부를 환원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주 이사장은 이런 발원을 평소 인연이 있던 중앙승가대 교수 보각 스님에게 털어놓았다. 그러자 스님은 불교계엔 장학사업과 학술연구 지원 등이 타종교에 비해 열악한데, 이 분야에 도움을 주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했다. 발원에만 그쳤던 재단 설립에 대한 그의 의지가 구체적인 현실로 옮겨질 수 있었던 것은 70년경 용인에 부지를 매입해서 15년동안 키워온 반나무 농장을 처분한 2억여 원의 이윤이 계기가 되었다. 처분한 돈으로 아산 레미콘 회사를 설립해 기틀을 마련한 주 이사장은 91년 12월 자신의 법명을 딴 행원문화재단을 세웠다.

“80년에 일본을 방문했을 때 목었던 호텔의 서랍속에 비치된 불교경전을 보고 큰 자극을 받았습니.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 경전은 대



◇세상사는 이야기를 알기 위해 매일 아침 교계 및 일간신문을 탐독한다는 주영운 이사장.

부분 한문으로 돼 있어서 읽기가 쉽지 않았지요. 그때 역경의 중요성을 새삼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1회부터 4회까지는 중립학교 학생들의 장학금과 역경상만을 주었지요.” 이후 주 이사장은 아산 레미콘, 서전운수, 서전시멘트 등 그가 운영하는 회사에서 나온 이익금을 꾸준히 보태 계속 재단 출연금을 늘려 나갔다. 지난해 까지 10여년간 5억 5천만원이나 적립했지만 계속되는 예금 금리의 하락으로 운영에 어려움을 겪자 올해초에는 1억원을 더 출연하기도 했다.

“재단법인의 기금이란게 본래 출연금의 이자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요즘은 워낙 금리가 낮아 힘이 든다”는 주 이사장은 10여개의 통

장을 꺼내보이며 “원금이 손상되지 않는 한 이자 환원이라도 더 받아 불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기 위해 직접 이자 좋은 은행을 찾아다니며 발품을 판다”고 말했다. 넉넉한 형편에서 시작한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어려움도 있었지만 당시 혜성 중앙승가대 학장 스님의 가르침은 재단을 이끄는 데 큰 원동력이 됐다.

“혜성 스님이 하루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좋은 일을 하는데 빠져 나간 돈은 반드시 채워진다는 겁니다. 인생 팔십의 나이에 지난 날을 회고해 보니까 이 진리가 딱 들어 맞더라고요. 남에게 베풀면 또 그만큼 사업이 번창해 이윤이 생긴다”며 소탈한 웃음을 짓는다.

역경상으로 출발한 행원상도 폭을 넓혀 5회부터는 불교 문화계에 공이 많은 예술인들에게도 시상하며 이름도 행원문화상으로 바꾸었다. 어떤 때는 추천자가 많지 않고 또 호응도 부족해 관한 일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실망도 했다. 주 이사장에게, 10회 때 역경상을 수상했던 각성 스님의 수상 소감은 지금도 기억속에 또렷이 남아 큰 격려가 되고 있다. “각성 스님이 처음 수상 소식을 접할 때까지 행원문화재단이 뭐 하는 단체인지 잘 몰랐더라고요. 그런데 시상식장에서 그 의미를 알고서 종단의 무관심속에서도 12년 동안이나 끈고든 저에게 고맙다고 손을 잡으시면서 칭찬을 해 주셨습니다.”

일반 사회단체처럼 큰 규모는 아니지만 행원문화상은 불교계의 유일한 문화상이다. 또한 평생의 원을 실천함에 옮기며 살아온 주 이사장의 피와 땀이 배어 있는 결실이기도 하다. 요즘도 새벽 5시에 일어나 부인 장기옥 보살(75)과 함께 <반야심경>을 암송한다는 주 이사장의 앞으로의 계획을 묻자 교계의 신행단체나 언론사들과 연계해 한글 경전을 각 관공서나 호텔등에 보급하는 운동을 펼치고 있다고 답한다.

글=김주일 기자 jkim@buddhapia.com
사진=박재완 기자 jwpark@buddhapia.com



주영운 이사장은 △1924. 9.24 경기도 개풍군 토성면 출생
△1937. 3 경기도 개풍군 토성초등학교 졸업
△1962.6~1985.2 (주)한일시멘트 입사, 전무이사 역임
△1983.2~1989.2 한일산업주식회사 이사
△1987.7~1991.3 서전운수주식회사 대표이사
△1991~현재 (주)아산 레미콘 대표이사, 행원문화재단 이사장

시장 제일기도도량 도솔천 내원궁 도솔암

1029일 천도재

도솔암은 최근 극락보전을 중창 낙성하고 아미타부처님을 개금해드리는 한편 후불탱화를 새로 모셨습니. 이 뜻깊은 불사 회향을 선망부 모·유주·무주 고훈과 함께 하고자 1029일 동안 49재를 21번 지내는 대규모 천도제를 올리고 있습니다. 결국 모든 동참 불자들에게는 천도제사를 매주 올리게 되며 기도회항때까지 총 147회의 제사를 지내게 되는 것입니다.

천년을 지켜온 마애불(보물 제1200호)과 지장보살(보물 제 280호)이 보살피시는 도솔암에서 다시 천년을 이어갈 가람으로 중창하고 열리는 ‘1029일 천도제’에 많은 불자들께서 동참하시어 뜻깊은 소망을 성취하고 모든 영가의 극락왕생과 성불의 인연을 맺으시길 기원합니다.

두번째 49재 안내	제 1재 8월 17일	제 2재 8월 24일	제 3재 8월 31일
	제 4재 9월 7일	제 5재 9월 14일	제 6재 9월 21일
	두번째 49재 - 9월 28일 원명사 묘허스님 영가법문		

▶ 매주 토요일 오후 10시 : 철야 지장기도 ▶ 매주 일요일 오전 10시 30분 : 천도제사(영가천도 법회 총 147회)

■ 교통안내 ● 매주 토요일 오후 2시 조계사암 출발 / ● 매주 일요일 오전 6시 30분 조계사암 출발

도솔암 전화 063)561-0075 / 팩스 063)561-4080 서 울 017-221-8778(이회장) 02)821-3242,4689(진여회) 부 산 011-855-8741(부산고속관광 박길하), 016-842-4272(유정희) 대 전 011-409-2702(동선관광 이현호)

조계종제24교구본사 선운사 도솔암 주지 지정 합장



◇도솔암 지장보살(보물 제280호)